

BCG접종 연구의 선구자 이성관(李性寬)

글 ·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내과의사로 출발하여 결핵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절감한 이성관은 경북대의대에 예방의학 교실을 개설하고 결핵상당소를 설치하여 결핵의 예방과 진료에 힘썼다. 집념을 불태운 BCG접종에 대한 그의 연구업적은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자 둘보다 결핵 발병

40년간 경북대의대 예방의학 교수로서 BCG접종 관련 최다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결핵예방의 독보적 존재로 군림했던 이성관은 1918년 2월 6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東區 新川洞)873번지에서 부친 이경록(李慶錄)과 모친 장선이(張先伊)의 3남으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던 그는 대구 농림학교를 졸업하면서 수원고등농업학교와 대구의학전문학교에 응시했다. 두 곳 다 합격했는데 담임선생의 권고와 객지생활의 부담도 덜 겸 의사가 되려는 꿈을 안고 대구의전에 입학했다.

1941년 3월 대구의전을 졸업하자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 내과학교실에 부수(副手)로 들어가 저명한 내과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환자진료와 연구에 힘쓰다가 1943년 6월 대구의전 내과 전임강사로 발탁되어 모교로 돌아갔다.

당시 일제 말기의 상황은 태평양전쟁으로 식량과 물자가 궁핍하고 전시 총동원령에 의하여 노동인력은 군수공장이나 탄광으로 강제 징용되고, 학병이니 지원병이니 하는 미명하에 우리의 청년들이 전쟁터로 내어 몰리고 이 틈을 타 결핵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다. 8.15 광복 후에도 사회적 혼란과 경제파탄으로 민생이 극도로 어려웠으며 여전히 내과환자의 50~60%는 결핵환자였다.

이성관은 내과에서 수많은 결핵환자를 대하면서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죽어가는 환자에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의사의 무력함을 통탄하면서도 밤낮

을 가리지 않고 성심 성의껏 환자를 돌보았다. 그러던 중 그 자신도 결핵에 걸려 1948년 학교를 쉬지 않으면 안되었다.

54년 결핵상담소 개설

1953년 건강을 회복한 그는 학교로 돌아갔으며 그 때 고병간(高秉幹)학장이 예방의학교실을 새로 만들려고 하니 맡아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일제시대부터 위생학은 있었으나 현대적 개념의 예방의학은 광복 후 미군이 진주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예방의학의 교과서도 없고 체계도 안잡히고 해서 망설였으나 내과를 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보건문제 중 결핵과 기생충 혹은 전염병이 가장 큰 문제이고 결핵같이 잘 낫지 않는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 예방의학의 길을 택했다. 즉 결핵예방을 위해서 예방의학을 택한 결과가 되었다.

1953년 3월 예방의학교실 부교수로 학교에 복직한 그는 첫 사업으로 다음해 의과대학 부속병원 구내에 결핵상담소를 개설하고 소장을 겸직하면서 결핵환자의 진료와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BCG예방접종은 물론 결핵예방전시회 등을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결핵균을 볼 수 있도록 실물전시도 했는데 그것이 특히 인기였다.

상담소 건물은 일제시 마약중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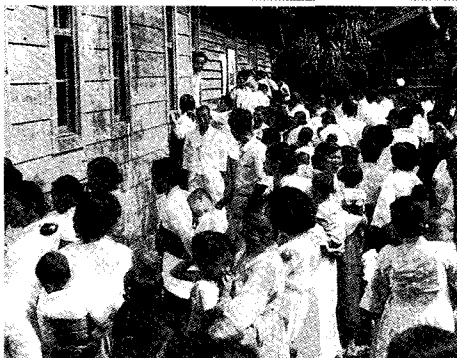
용소로 쓰던 낡은 목조건물이었는데 약간 개조를 하고 예방의학교실의 김정수(金旻守), 정낙진(丁洛珍) 등 스태프들과 함께 교대로 결핵진료와 상담을 실시했다. BCG접종을 겸한 결핵예방전시회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

그는 내과에서 결핵환자의 참상을 직접 목도하면서 결핵은 예방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은 바로 BCG접종과 그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BCG접종 연구에 몰두

1953년부터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BCG접종을 위하여 의사 56명, 간호사 11명에게 BCG접종 강습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각도별로 BCG접종반을 설치하여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먼저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아동에게는 전원 BCG접종을 했다. 당시 초등학교 1년생의 결핵감염률(자연양성률)은 약 30%, 6학년은 약 50%나 되었다고 한다.

그는 접종요원들에 대한 강습은 물론 경북도내 각처를 BCG접종반과 함께 다니면서 기술지도와 독려를 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밝혀냈다. BCG보관 문제, 광선노출 여부, 접종기술 등 4~5년의 경험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하나 하나 분석해서 연구논문을 만들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1. 경북대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는 1954년 동 대학병원 구내에 있던 일제시대의 마약치료소 건물을 보수하여 결핵상담소를 개설했다. 오른쪽부터 예방의학교실의 金甌守, 李性寬 교수와 직원 孔相澤, 崔東翊
2. 1958년 12월 13일부터 1주간 경북대의대 결핵상담소에서 개최된 결핵전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서는 BCG접종도 실시했다

BCG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의 많은 연구논문이 있고 WHO도 그 유효성을 인정해서 결핵이 많은 후진국에 이의 접종을 권장했지만 그 효과를 부정하는 학자도 있어 이성관은 민족간의 면역기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과연 한국인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 처음에는 토끼를 이용한 동물실험으로 BCG접종 군(群)이 훨씬 발병률이 낮은 것을 밝혀 냈

으며, 인체실험은 코호트 스타디를 통하여 집중 군과 비집중 군의 발병상태를 5년, 10년 후에까지 추구 관찰하여 집중 군이 월등히 발병률이 낮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1954년부터 64년까지 BCG의 국소 소견, BCG접종 후 T반응에 미치는 제 요소, BCG접종 후 T알러지와 면역, 한국 BCG의 접종성적, BCG와 결핵 면역, BCG접종자의 T알러지 양상 등 정력적으로 연구와 논문발표를 했으며 이 분야의 독보적 존재로 자타가 공인하였다. BCG접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1백여 편의 연구논문은 우리나라 결핵예방과 예방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1959년에는 보사부의 국산 BCG 효능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세대의대 소아과 교수 윤덕진(尹德鎭), 인천적십자요양원장 송호성(宋浩星), 서울대의대 내과교수 김경식(金敬植), 부산대의대 내과교수 이찬세(李燦世), 국립방역연구소의 김현규(金賢奎), 김용현(金容鉉) 등과 함께 국산 BCG의 효능 평가를 실시하여 그 유효성을 증명하고 아울러 국산 BCG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1960년부터 3년간 보사부의 결핵관리대책위원으로서 정부결핵대책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1960년에는 독자적으로 경북도내의 울

릉도, 경산군, 대구시 등 도서, 농촌, 도시의 결핵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도시의 결핵감염률과 유병률이 가장 높고, 도시 지방이 가장 낮다는 사실도 밝혔다. 올릉도는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조사반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군수나 내무과장이 술선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원을 잘해서 누락자가 타지역보다 오히려 적었다.

보건대학원 설립

결핵예방사업에 대한 공로로 1958년 경북지사로부터 경북문화상을 수상했고 1961년에는 보사부장관 공로표창을 받았다. 또한 BCG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1959년 서울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7년에는 대학보건협회의 제1회 보건대상 학술부문을 수상했다.

1955년 결핵협회 경북지부가 설립되자 초대 총무이사로 참여하여 지부발전에 기여했던 그는 1961년 자신이 만든 결핵상담소를 경북지부로 이관하고 도 보건과에 있던 지부 사무실도 상담소 자리로 옮기도록 했다.

1960년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 장학생으로 독일 올쯔부르크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선전 유럽의 관계 시설과 연구소도 돌아 보았다. 1967년부터 2년간 경북대 의과대학장으로 재임했으며 1967년에는 대한결핵학회 부회장, 1974년에는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역임했

다. 1981년 5월에는 그가 주도하여 만든 경북대 보건대학원의 초대원장으로 취임해 정년퇴임한 1983년 2월까지 마지막 열정을 보건전문인력양성에 불태웠다.

이성관은 경북대의대 정년퇴임 후 바로 1983년 3월부터 5년간 즉 70세까지 계명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초빙교수로서 강단에 섰으며 1987년부터 1994년까지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경북시지부 산업보건센터 관리의사로서, 또한 1995년부터 1996년 1월 29일 타계할 때까지는 대구 가톨릭 산업보건센터 관리의사로서 일했다. 그 지역의 산업보건 현장에서 끝까지 헌역으로 뛰다가 세상을 떠난 그는 타고난 일꾼이었고 일복을 누린 행운아였다. 그는 간암진단을 받은 지 2주만에 세상을 떠났으며 군위(軍威)의 천주교묘지에 묻혔다. 향년 78세.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타고난 성실성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평생 희생정신과 사명감에 투철한 예방의학자의 길을 진지하게 개척하고 꾸준히 지켜 오면서 특히 결핵 예방과 BCG접종에 대한 많은 연구업적을 남겼다. 그것은 우리나라 결핵사에 길이 남을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유족은 부인 신윤식(申潤植)여사와 3남이 있는데 장남 무형(武炯)은 경희대의대 피부과 교수, 차남 주형(周炯)은 경동정보대 교수, 3남은 한양대 중소(中蘇)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卍